

광주·전남 사회적 기업 육성 3년

민간·복지서비스와 중복 수익만 따져 갈수록 축소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사업분야가 여전히 민간서비스나 기존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사가 이뤄지면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영입에 따른 기업수익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애초 설립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한다. 수익이 적어 자립할 수 없는 곳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직원 1인당 인건비 93만2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중간심사에서 탈락한 '빛고을바이크사업단' 김광훈(43)씨는 "단기적인 수익만을 본다면 사회적기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의 성공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투자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틈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지원센터·기업연계 프로그램 등 시설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기업 내실화 ▲판로확보 및 제품개발 지원 ▲대기업 사회공헌팀 연계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워크숍 개최 및 교류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일률적으로 심사·평가한다는 지적도 있어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마 사이 무더위 5일 광주 최고 기온이 30.1도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삼호지구 골프장만 늘어나나

서남해안레저, 27홀서 72홀로 증설 추진 타 지구 사업자 반발 J프로젝트 지연 우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 삼호지구내 골프장이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늘어날 것으로 골프장 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삼호지구의 골프장 증설에 대해 J프로젝트내 다른 사업지구 시행자들과 광주·전남지역 기존 골프장들도 반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J프로젝트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맡고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레저(주)가 개발

계획안을 수정해 지난 1일자로 전남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삼호지구 실시계획안은 866만1000㎡의 면적에 총 사업비 4천470억원을 들여 스포츠단지, 승마장, 마리나, 신재생에너지단지, 골프장 등을 2025년까지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골프장을 당초 27홀에서 72홀로 증설하고 주거용지를 전체 면적의 7.9%에서 18.0%로 늘린 것이다. 문제는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8홀 기준으로 1.5개이던 골프장이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삼호지구는 지난해 10월 J프로젝트내 사업지구 가운데 최초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금호산업의 유동성 위기로 SPC 주관사가 에이스회원 권거래소로 바뀌면서 허브가든을 골프장으로 용도 전환하는 실시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의 협의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승인이 완료되면 12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 사업지구 시행자와 광주·전남지역 골프장 운영자들이 사업 지연과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반발하면서 골프장 수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07년 말 사업지구별로 총 22개

(삼호지구 3개, 구성지구 9개, 초송지구 10개)의 골프장 건설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환경파괴와 골프장 수과다를 이유로 17개(삼호지구 1.5개, 구성지구 7개, 초송지구 8개)만 승인했는데 뒤늦게 삼호지구가 증설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경쟁 사업지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인·허가 과정을 거쳐 적정 골프장 수를 결정했는데 독단적 승인이 완료되면 12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골프장 관계자도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지난해 말 협회 명의로 골프장 수를 줄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늘게 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17개만 생겨도 현재 운영중인 전남 골프장의 73%에 달해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과업 안하면 현대차 만큼 보상하겠습니다”

기아차 서영종 사장 노조에 제안...성사 여부 관심

20년 연속 파업을 눈앞에 둔 기아자동차가 파업하지 않으면 현대차만큼의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스포티지R과 K5 등 신차 돌풍으로 현대차를 턱밑까지 추격한 기아차는 지난달의 경우 중순까지는 판매에서 현대차를 앞질러 국내 자동차업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노조가 주말특근을 거부하면서 막판에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아차에 따르면 서영종 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여러분이 지켜주시시오'라는 제목의

가장통신문에서 "올해 19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파업을 실현한다면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무파업 보상을 흔쾌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기아차의 신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섭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잘나가던 회사가 파업의 수렁에 빠져서야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서 사장은 이어 "20년째 이어지는 파업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한걸음 더 정상으로 가까이 갈 때 회사는 종업원들의 노고에 적극적인 배려를 잊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아차 노조에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아차 노조는 급여와 상여 등에서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15년 만의 무파업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400만원 상당의 무상주 40주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파업 보상 제안은 교섭장에서 할 얘기"라며 "사측은 교섭장으로 나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7일 광주공장서 교섭측과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6일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간인 사찰’ 총리실 4명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은 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들 중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

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록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총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포회 가입 여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엔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수분의 보습과
 미끈한 피부
 스킨케어에 선택해라
 Subhasan